文 "전북 친구 되겠다… 마지막 기회 달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 찾아 '어르신 위한 9가지 약속' 발표…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호남권 유세에 돌입, 전주를 찾아 "저 문재인,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느냐"며 지난 2012년 대선에 이은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 앞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정부를 만들고 힘이 되어 준 것도, 호된 야단으로 깨우쳐주신 것도 전북이었다"며 "민주주의를 키우고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전북의 마음,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따뜻한 전북의 마음, 전북은 저에게 늘 고마운 곳이었다"고 고개숙였다.

그는 "전북은 100년도 훨씬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을 전했다"며 "전봉준 장군이 사람이 하늘이라는 깃발을 들었던 4월에 문재인이 만들 제3기 민주정부의 꿈을 말씀 드리고 싶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발전도 제가 책임지겠다. 전북을 경제 중심지로 키우고 육성할 것"이라며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이것으로 평가받겠다. 이번 선거는 이념, 세대, 지역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로 국민이 통합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었다. 차관 6명이 전부였고, 예산 차별은 말할 것도 없었다"며 "그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어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북의 인재들이 마음껏 일하고, 전북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에 주소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 고향은 전주요, 익산이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꼭 정권교체를 해내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시는 전북에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문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김성한 전 기아타이거즈 감독을 비롯해, 김현미(정읍), 이춘석(익산), 김병관(정읍), 소병훈(군산), 안호영(진안) 등 민주당 소속의 전북 출신 의원들이 문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아울러 평일 낮임에도 불구, 민주당 추산 약 5,000명의 당원 지지자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며 문 후보를 맞았다. '셀카'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는 문 후보에게 꽃다발과 인형을 안겼다.

문 후보는 유세 차에 오르기 전 작은 나무단상에 올라 양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시민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문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뜨기 전 전주비빔밥 퍼포먼스를 보이며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주에 왔을 때 전주 시민들이 엄청 커다란 밥솥에다 비빔밥을 주셨던 게 기억난다"며 "통합의 정신, 그 마음으로 사상 최초로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국민통합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꼭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을 골자로 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1번째 정책시리즈로 '어르신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은 참여정부 때 내놓은 제도인데 이것저것 공제가 많이 돼 어르신들은 40% 밖에 못 받는다"며 "지난 총선 때부터 공제 없이 30만원씩 지급해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동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확대한다.

노인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현재 치매 환자가 약 70만명으로 전체 어르신 10분 중 1분"이라며 "어르신들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해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엔 ▲지역별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 검진 및 돌봄서비스 제공 ▲경증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중증 치매환자 전문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방과 세탁실, 마을목욕탕 등을 갖춘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확대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100원 택시' 등을 도입한다. /안재용 기자

미래의 유권자들과 함께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하성면 하성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1일 교사를 맡아 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새만금특위, MOU 질의서 삼성 전달

27일까지 답변 안할 경우 '투자계획서' 없는 것으로 판단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의 양용모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18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주) 본사를 방문했다.

질의서에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삼성의 입장표명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삼성을 방문한 특위위원들은 질의서를 전달하고,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새만금 투자 MOU 진상규명을 위한 삼성의 진정성 있는 태도 요구를 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질의서의 답변기한은 27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삼성에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질의서에 명시한 대로 특위는 2011년 삼성에서 제출했다고 하는 새만금 투자계획서인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8일에 2011년 MOU 당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전북도에서 실시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정무부지사로부터 보고 받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의회21 봄호' 발간

전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는 18일 도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회소식지 '전북의회21 봄호'를 발간했다.

봄호는 지난 1~3월까지 3개월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질문, 5분자유발언, 현장의정활동,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청취와 질문 내용 등을 수록했다.

특히 삼성 새만금MOU조사특위 구성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작은 학교 지원,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새만금사업 지역 업체 참여보장 촉구 결의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의 멋과 맛, 지역의 주요 축제 등 행사, 농어촌마을을 의원들이 추천하거나 직접 참여해 소개하는 기획특집 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허남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의회소식지는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담아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일환으로 제작, 발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의 맛과 멋, 그리고 축제, 농어촌마을 등을 소개하는 기획면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문재인 정책 만드는 '국민특보단' 오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8일 오전 11시부터 국민들이 후보 캠프의 전략·정책 등에 참여하는 '국민특보단' 플랫폼을 선보인다.

문 후보 측 김태년 공동특보단장은 이날 "문 후보나 민주당의 특보가 아닌 정권교체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특보"라며 국민특보단을 소개했다.

국민특보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PC·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의 전략과 정책, 메시지 등을 집단지성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 측은 정치인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후보특보단'과 '국민특보단' 등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김 특보단장은 "국민특보단은 누리집 온라인 회의실에서 활동하게 되며 주요 정책·정무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후보특보단에서 안건을 제안하면 국민 특보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캠프전략본부와 특보단에서 검토 후 반영되는 절차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활동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특보단 누리집(moonjaein.com/with)에서 가입하면 된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도당 "전북사위 홍준표 찍어달라"

대선 체제로 돌입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8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전북의 사위 홍준표를 찍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미래를 바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녀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도민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이상 슬픈 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표를 몰아주고서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짝사랑 선거는 이제 그만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 동북아 복합물류·관광산업단지 육성 ▲탄소·BIO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대한민국 대표 한류관광 및 역사체험 특구 조성 ▲국토연결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호남권 중심 금융클러스터 조성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및 개최 지원 ▲위기의 군산 조선산업 돌파구 마련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뉴시스